

# 국제정치 이론에서 본 중미관계의 미래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

한석희  
연세대학교


2012년 9월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2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 국제정치 이론에서 본 중미관계의 미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한석희  
연세대학교

### I.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는 중미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찍는 사건이었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부실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 Inc.) 등 세계적 금융사의 부실 도산으로 이어졌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과 신용경색을 유발시키면서 전 세계 실물경기 침체로 확산되어 갔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오던 미국은 세계금융위기로 자국의 경제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 리더십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반면,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자국의 국가역량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력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부상(rise)과 미국의 쇠퇴(decline)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으며,<sup>1</sup> 특히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G2"<sup>2</sup> 또는 차이메리카(Chimerica)<sup>3</sup> 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양국 간의 협력 및 상호의존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갈등과 경쟁을 심화시켜오고 있다. 그 예로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2009년 11월) 이후부터 중미 양국은 다양한 이슈를 대상으로 상호간의 힘겨루기를 시도해 오고 있으며, 이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기후변화협약, 인민폐 평가절상 및 남중국해 지역갈등,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갈등과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미국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회귀”(return to Asia) 전략(2011년 11월)은 중국의 전략적 우려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sup>4</sup> 일부 서구의 학자 및 언론들은 이러한 양국 간의 갈등원인을 “중국의 反서구적 反외세적 민족주의” 또는 “중국의 외교적 자만(overconfidence)과 국내적 불안이 결합된 오판(miscalculation)”에서 찾고 있는 반면, 중국의 매체에서는 대부분(55%)의 중국인들이 현재의 중미관계를 “신 냉전”의 전조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몇몇 학자들을 인용하여 중국에 대한 미국의 행위를 응징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논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Sheridan 2010; Pomfret 2010; Nye 2010; 〈环球网〉 2010/02/02).

물론 탈냉전기 중미관계가 협력과 갈등의 교차적 동시적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놓고 볼 때, 현재의 중미관계도 표면적으로는 협력-갈등의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위에 나열했던 중미간의 다양한 갈등이슈들도 지난 30년간의 양국관계를 검토



해 볼 때, 새롭게 나타나는 이슈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미관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관계가 향후 국제질서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과 좀 약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세계의 패권국으로 남아있는 미국과의 관계는 확실히 미래 세계질서 형성의 핵심요소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sup>5</sup>

현재의 중미관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의 중미관계를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가 중국의 상대적 국력신장에 따른 중국의 대미인식 변화와 중국의 대미태도의 변화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자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자신감을 반영하여 대내적으로는 중국공산당 지도력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해 오고 있다. 중국의 국력신장에 따른 이러한 태도변화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의 패권이 침체를 겪으면서 보다 명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6</sup>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갈등 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국제질서 형성에 핵심적인 요소인 양국관계 설정에 대하여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 II. 중미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현재의 중미관계는 미래의 국제질서를 결정짓는데 가장 핵심적인 결정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미관계는 평가자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으며, 따라서 미래의 국제질서도 상당한 불확실성 속에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좀 더 명확하고 현실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론적 접근법을 수용하는 것이 낙관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많은 학자들과 분석가들이 양국관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또 그 방향에 가장 중추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과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론적 분석은 현실을 보다 더 적실성 있게 설명해줄 수 하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관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론적 분석은 현실주의(realism), 자유주의(liberalism), 그리고 구성주의(constructivism)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이를 중미관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적용시켜 보았을 때, 각 각의 이론적 접근은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미래의 중미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각의 이론에 향후 중미관계에 대한 낙관적 예측과 비관적 예측이라는 2개의 변수를 적용시켰을 때, 중미관계의 미래를 분석하는 이론적 설명은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비관적 현실주의(realist pessimists); 낙관적 현실주의(realist optimists); 비관적 자유주의(liberal pessimists); 낙관적 자유주의(liberal optimists); 비관적 구성주의(constructivist pessimists); 낙관적 구성주의(constructivist optimists).<sup>7</sup> 프리드버그(Friedberg, Aaron L.) 교수는 이 6개의 변수를 가지고 중미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이 글은 프리드버그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미관계의 미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현실주의적 접근(realist approach)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모든 국가는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anarchy)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공통된 목표는 생존(survival)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국가들은 힘(power)을 추구하며 그 힘만이 자국의 생존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sup>8</sup> 이를 중미관계에 적용시켜보면, 비관적 현실주의자(realist pessimists)들은 중국의 부상(rising)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중미관계가 심각한 안보경쟁에 휘말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전쟁 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부상하면서 주변국과의 국력격차를 더욱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중심의 지배권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안보딜레마를 기반으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지배권을 구축한 상태에서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이 지역에서 퇴각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9</sup>

반면, 낙관적 현실주의자(realist optimists)들은 전제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비관적 현실주의와는 달리 중국이 자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힘이 제약되어 있고 패권의지도 약하여 상대방의 진의를 의심하면서 군비를 확대하는 안보딜레마가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강조하는 점은 인식적 오인(misperception)에 의한 갈등유발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선 탈냉전기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제이고, 이들 국가들은 모두 핵 보유국이며, 동아시아의 특수한 지정학적 요인 등이 모두 안보딜레마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Goldstein 1997, 70). 왈츠(Kenneth N. Waltz)에 의하면 양극체제일 때가 가장 안정적인 체제라고 알려지고 있으며, 핵 전쟁은 그 성격상 공도동망(共倒同亡)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쟁 발발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상 미국은 해양세력이고 중국은 대륙세력이기 때문에 각자의 영향권이 겹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sup>10</sup>

또한 이들은 중국의 국력에 대하여 저력은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이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높지 않은 주장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중국 사회 내부의 불안정성 및 정치적 비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또는 팽창은 이러한 사회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방해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부상하는 중국의 발전목표가 국제질서의 틀을 바꾸려는 혁명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현존 국제체제 내에서 자국의 역량 및 영향력을 제고시키려는 의도가 강한 수정주의적(revisionist) 성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sup>11</sup> 즉 이들은 중미관계에서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세력전이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중국을 현존체제 유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 2. 자유주의적 접근(liberal approach)

자유주의적 접근은 중미관계를 경제적 상호의존(economic interdependence), 국제체제를 통한 제도주의(international institutions), 민주화(democratization) 이라는 변수를 통하여 접근하는 이론적 틀로서 상호의존적 경제발전이 중국을 보다 협력적인 국가로 변화시키고 양국관계를 평화적으로 지속시킬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양국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낙관적 자유주의자들(liberal optimists)은 중국과 미국이 국제체제를 통한 접촉을 증가해 감에 따라 양국 간의 상호 이해의 범



위가 넓어지고 신뢰감이 증진되며, 상호간의 오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민주화는 평화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낙관적 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의 향후 민주화에 대하여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법치주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발전은 결국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결국 중국의 정치자유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결론을 주장하고 있다.<sup>12</sup> 이들은 또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심화시켜감에 따라 민주화 과정도 이미 일정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개방화와 경제발전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 내부의 중산층(middle class)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의 근대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중국은 반드시 민주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sup>13</sup>

반면, 비관적 자유주의자들(liberal pessimists)은 낙관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비현실적 모순점을 수정하고 최근의 현실을 좀 더 적실성있게 반영하면서 성장하였다. 이들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상호의존, 국제체제 및 민주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이러한 요소들이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는 낙관적으로 역할 하지 못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현재 중국의 정치체제를 전체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권위주의적 체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통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 지도부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대 및 공안 등과 같은 합법적 폭력에 의지하고, 경제발전 실적 및 민족주의(nationalism)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바람직한 중국의 변화와 이에 따른 중미관계의 변화는 민주화(democratization)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민주화 논의의 뿌리에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이 자리잡고 있다.<sup>14</sup>

일반적으로 민주평화론이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민주평화론은 민주국가들이 비민주국가들을 신뢰하지 않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쟁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관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 체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15</sup> 중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미국과의 대립 및 충돌은 중국의 생존을 위해서 꼭 넘어야 할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인권문제와 대만문제는 민주화와 관련하여 양국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있으며, 중국은 민주주의국가도 아니고 또 민주화할 의지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민주화된 대만을 비민주적인 중국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만수복을 국가적 목표로 제기하고 있다.<sup>16</sup>

### 3. 구성주의적 접근(constructivist approach)

구성주의자들은 국제관계란 정치관계와 같이 사회적으로 구성(socially constructed)된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국가 간의 관계는 객관적인 요소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집단적 자기인식(collective self-perceptions),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s), 그리고 규범(norms)과 같은 주관적 요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7</sup> 이러한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은 오랜 기간 동안 현실주의적 주장에만 길들여져 왔던 국제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전해주었다.



즉 국가이익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제정치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를 중미관계에 대입해 보았을 때, 낙관적 구성주의자들은 중국이 국제체제에 가입하고 체제 내 활동을 한다면 학습효과(learning)에 따라 그 국제체제가 대변하고 있는 국제적 규범 및 규율 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중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뀔 것이라는 주장에 이론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들은 중국이 국제체제에 좀 더 깊숙이 관여 할수록 중국은 더욱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낙관적 구성주의자들은 중국의 변화를 전제로 미래의 중미관계를 낙관적인 관계변화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실 서구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다자주의를 통한 구성주의적 변화를 시도했던 이유는 다양한 다자간 국제체제의 규범과 규칙을 통하여 부상하는 중국을 사회화(socialization)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이 국제체제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국제체제가 지향하는 규범과 규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좀 더 많은 국제체제에 가입시키고 그 체제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중국을 그 규범과 규칙에 동화시킴으로써 현존체제에 자연스럽게 동화시키는 것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비관적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은 낙관적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한다. 낙관적 구성주의자들은 외부세계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이 결국 중국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어 중미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낙관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비관적 구성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인식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중국지도자들의 생각이 바뀌는 데도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미국 지도자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식변화란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비관적 구성주의자들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과거의 자기인식을 약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과거의 인식을 강화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18</sup>

### II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미관계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미관계를 검토해 보면 양국은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강조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경쟁과 갈등을 표면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국관계의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과 이를 반영한 중미 양국의 신개념 대외전략이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중국은 미국의 쇠퇴를 목도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이 중국의 강대국화를 좀 더 가속화할 것이며, 이는 결국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강대국으로 발전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sup>19</sup> 미국의 입장에서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현존 국제질서에 좀 더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외행태와 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sup>20</sup>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은 앞으로 계속 갈등만 할 것인가? 협력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중국과 미국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양국관계를 유지해 갈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미관계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 1. 현실주의에서 본 중미관계: 비관적 현실주의

현실주의와 관련된 중미관계의 주요이슈는 중국의 국력, 중국의 의도, 그리고 안보딜레마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국력과 관련하여 과거 중국의 국력신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낙관적 현실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2008년 이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자연스럽게 군사적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 및 스텔스 전투기 개발, 우주개발 프로젝트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중국의 한 학자가 설파하듯이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걸맞은 군사적 부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sup>21</sup> 군사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미국 및 주변국들의 안보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력신장에 따른 군사력 강화 및 외교적 공격성(assertiveness)의 확대는 미국에게는 패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주변국들에게는 안보불안정으로 비춰지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구체화되면서부터 국제사회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의 의도(intention)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중국의 강대국화 의도를 현상유지적 성격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그 후에는 현상타파적 성격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즉 2008년 이전에는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더라도 미국중심의 현존 국제질서에 도전하거나 이를 파괴시키려는 시도보다는 현존 체제 내에서 자국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데에 만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9년 오바마 취임 이후 중미간에 나타난 다양한 갈등을 중심으로 중미간의 세력갈등은 점차 첨예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그 갈등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의도도 기존의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를 넘어선 중국중심을 국제질서를 도모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sup>22</sup>

그 예로 200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 및 갈등은 다양한 국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그 강도를 더해가는 양상이다. 인민폐 절상의 문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접견 및 인권문제, 남중국해 (자유)항해권의 문제,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서 나타난 중미간의 경쟁구도, 시리아 제재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대 등을 포함하여 중국과 미국은 다양한 이슈와 영역에서 경쟁과 갈등을 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운 양상의 세계패권경쟁 구도로 설명될 수 있다.<sup>23</sup> 물론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중국도 미국도 모두 세력전이의 가능성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중국이 자국의 부상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강화시켜 가면서 특유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중국적 세계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최근 중미관계를 검토해 볼 때, 향후 단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미간의 안보딜레마를 통한 대립과 경쟁은 상당히 강렬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도발에서 비롯되는 예기치 않은 중미간의 군사적 대치가능성은 상존하고 있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해상대립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Yang 2010, 3-11).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회귀” 선언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유지 시도와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및 도전은 상당한 안보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양국 간의 새로운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시아로의 회귀의 주요 내용으로 호주에 미 해군기지 설립, 미-필리핀 군사교류 강화, 미-미얀마 관계개선,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도입 등을 들 수 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정책으





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미관계는 경쟁적 대립적 성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측면에서 양자관계는 비관적 현실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sup>24</sup>

다만 한 가지 예외적인 점은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이다. 전통적인 안보딜레마 소재였던 대만은 최근 마잉주(馬英九)의 총통연임 성공과 현상유지 전략의 선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오래된 안보딜레마 구조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과 대만이 2010년 체결한 양안 경제협력 기조협약(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은 양국 관계개선에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는 “차이완(China+Taiwan)시대”를 여는 경제통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안보적 안정을 도모하는 성숙한 외교관계를 이룩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sup>25</sup> 그러나 양안관계가 잠정적으로 평화적 관계를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통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문제해결을 고려해 볼 때, 양국 간의 갈등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한 향후 중미관계는 상당히 경쟁적 갈등적 요소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따라서 비관적 현실주의적 분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 2.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본 중미관계: 비관적 자유주의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에서 다루는 세 가지 잣대는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체제, 그리고 민주화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미관계를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검토해 보면, 비관적 자유주의적 분석이 상황을 더 적실성있게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2009년 이후에도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교류는 양적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양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밀접하게 진행되고 상호이해관계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신뢰도가 높아졌다거나 또는 상호협력이 더욱 증대되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력이 신장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던 반면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축소되자 중국과 미국은 상호 간의 협력 및 신뢰 구축 보다는 오히려 알력 및 갈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경쟁의 바탕에는 양국 간의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sup>26</sup>

[표1] 중국과 미국의 무역추이(\$ billion)

	1985년	1995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Total*	7.7	57.2	285.3	366.0	456.8	513.1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또한 국제체제(international institutions)를 통한 중미관계를 보더라도 중국이 상당히 많은 국제체제에 참여하고 그 체제 내에서 역할을 증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자유주의자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신뢰했던 바와 같이 양국 사이의 신뢰도 증가나 상호이해 증진 등은 제한적으로 나



타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나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와 같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설하게 체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다자간 국제체제가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체제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동아시아 지역 내 국제체제에서 중국은 동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상당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듯하다(Wu 2009, 55-77). 특히 2009년 이후에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 국제체제에서 미국의 영향력 견제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 국제체제가 자국의 영향력 강화의 유용한 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국제체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왔다.

그 예로 미국과 중국은 2010년 7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회의를 필두로 ARF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고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공방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27</sup>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적인 국제체제로서 ASEAN+3를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강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ASEAN+6(East Asian Summit: EAS)에 비하여 ASEAN+3를 선호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EAS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 구축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다.<sup>28</sup> 또한 중국은 6자 회담과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두 국제체제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도 책임대국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하나의 실증적인 예로서 이 두 국제체제를 선전하고 있다.<sup>29</sup>

민주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최근의 중국 내부의 상황은 비관적 자유주의자들의 평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과거 낙관적 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심화시켜감에 따라 민주화 과정도 이미 일정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특히 중국의 개방화와 경제발전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 내부의 중산층(middle class)이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30</sup> 따라서 이들은 중국의 근대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중국은 반드시 민주화될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은 경제발전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주의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혁 개방이 강화됨에 따라 중산층이 증가하는 것은 이들의 예측과 동일했으나 중국에서는 이들 중산층이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동인으로 역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옹호자로 작용하였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논쟁과 맞물려 중국 내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을 강조하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타진하였다.<sup>31</sup> 이렇듯 낙관적 자유주의자들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낙관적 자유주의자들의 중미관계에 대한 평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3.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중미관계: 비관적 구성주의

구성주의자들은 국제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전제에서 연구를 시작한다. 즉 이들은 국가간 상호관계의 기본은 단순히 객관적 물질적 요소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요소에 의한 영향력도 상당부분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미관계에 구



성주의적 시각을 적용해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과연 중국과 외부세계와의 지속적인 접촉이 중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미관계 발전에 낙관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중국이 과거 자신의 규칙이나 가치를 잇고 새로운 규범 또는 규율을 배우고 체화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주요 과제라는 것이다(Wendt 1992, 391-426). 사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도 중국과 미국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해 왔다. 과거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고위급 전략대화과 경제대화를 하나로 합쳐서 총리급으로 격상시키면서 전략 및 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D)로 새롭게 구성한 후 양국은 2009년부터 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양국 정상 간의 상호방문도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다.<sup>32</sup>

그러나 양국 간의 이러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접촉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인식이 그다지 바뀌는 것 같지는 않다. 그 원인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변화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신의 것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중국은 과거에 자국의 발전에 따라 미국 및 국제사회에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바꾸어가는 작업을 시도했으나, 세계금융위기에서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보다는 새로운 것과 자신의 것을 조화롭게 공존하게 만드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신들의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상당한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화평연변(和平演變, Peaceful Evolution)에 중심으로 두고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 변화를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순응하기 보다는 평화공존(和平共存, Peaceful Coexistence)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를 파악하면서 대외관계의 주요지침으로 도광양회(韜光養晦)보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더 강조하는 듯이 보인다. 도광양회는 자신의 재능을 감추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국력신장 과정에서 중국 대외관계의 기본방향으로 역할 해 왔다. 사실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도광양회의 의미는 미국과의 패권적 대결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와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자국의 국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중국은 변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낙관적으로 반응해 왔다.<sup>33</sup>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상대적인 능력이 향상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증대되자 중국은 자국의 대외관계 방침을 도광양회에서 유소작위로 바꾸어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유소작위는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 뜻을 이루어낸다는 의미로 이는 중국이 자국의 커진 국력과 영향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Chen 2009). 특히 중국이 유소작위 중심의 외교를 펼치면서 국제사회의 규범 및 규칙을 배우기보다는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는 점은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중국의 부상이 예상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최근 중국의 대미태도는 패권에 도전하되 공개적인 무력대립은 하지 않는다는 “일상적이고 적법한 저항”(everyday and rightful resistance)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을 수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미국의 패권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을 대신한 중국적 세계질서를 준비한다는 것이다.<sup>34</sup>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ASEAN+3 등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WTO 등



의 국제기구에 참여한 후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며 의제설정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정치적 영향력과 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sup>35</sup> 특히 중국은 언어, 전통문화, 경제원조 등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중동지역에 베이징 컨센서스와 소프트파워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중국이 현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평가해 볼 수 있다.

#### IV. 결론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중미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경제중심지 월가(Wall Street)로부터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는 결국 미국경제의 쇠퇴를 증명하였고 이는 정치 외교 군사 등 다른 분야에까지 파급되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반면,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오고 있으며,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아직까지 미래의 국제질서에 대하여 속단하기에는 중국과 미국 양국관계가 확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즉 미국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미국이 어디까지 약화될 것인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잃을 정도로 약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대국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평가가 나와있지 않을뿐더러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가 존재하고 있어 선불리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세력전이를 주장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과 미국은 협력과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동반하락 내지는 공황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은 밀접한 공생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공재 공급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경쟁과 주도권 싸움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경쟁구도는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경쟁이다. 중국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달러를 국제사회에서 공평하게 통용될 수 있는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대체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달러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 보았을 때,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사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세력전이에 대한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반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여 새로운 세계패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근거로는 미국의 군사력, 쇄신성, 발달된 고등교육, 소프트 파워 등을 들고 있는 반면, 중국의 세력전이 가능성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지속적 경제성장, 군사력의 약진 및 역사성에 의한 강대국의 대체 추세를 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검토해 볼 때, 중국은 겉으로는 G2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은 회피하겠지만, 속으로는 패권적 질서의 정당성과 권위에 대항하고 비판하면서 비폭력적 저항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즉 아직까지 대안적 국제질서를 확보하지 못한 중국으



로서는 단기적으로 현 질서 내에서 미국의 패권을 수용하면서 미국 패권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미국과의 상호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국이 하드파워적 측면에서 미국을 넘어선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국의 민주화가 필수적이다. 냉전의 종식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세계화의 조류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에 동참하였으며, 그런 민주화의 추세에서 예외적으로 중국만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한 상태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물론 각 국가가 어떠한 정치체제 및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적 권한에 속하지만,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주화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화된 중국은 세계적 지도국으로서 좀 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리더십을 수행하고 또 주변국 또는 국제사회로부터 존중 받는 강대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화된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때,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세력전이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주(註)

<sup>1</sup> 이러한 논의를 다루었던 최근의 연구들은 Schweller and Pu (2011), Brooks and Wohlforth (2008), Parag (2008), Mahbubani (2008),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8), Mahbubani and Zakaria (2008) 참조.

<sup>2</sup> 중국의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미국의 방안으로 버그스텐(Bergsten)에 의해 제시되었던 G2개념은 미국과 중국의 평등한 협상, 글로벌 경제의제의 공동대처 등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이후 G2라는 개념은 2009년 1월 12일 북경회의에서 열린 중미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브레진스키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중 양국이 참여하는 'G2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세계 최강의 양대 강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2009년 4월 G20회의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Bergsten 2008; <중앙일보 중국 연구소> 2009/02/19; *The Economist* April/08/2009). 그러나 미국과 중국을 동일한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는 G2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비판적인 분석이 많다. (Segal 2009) 중국에서도 G2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자들이 다수라고 볼 수 있다(王彦榮 2008, 31-36; 王嶠生 2008).

<sup>3</sup> 차이메리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Ferguson and Shularick (2007)을 참조. 퍼거슨 교수는 최근 차이메리카의 종말을 선언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팩스 아메리차이나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분석은 Stelzer (2009); *China Daily March /07/2009* 참조.

<sup>4</sup>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해서는 Clinton (2011) 참조.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 이후 각 각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한 연구는 Cossa (2010) 참조. 인민폐 평가절상에 대한 분석은 Overholt (2010), Murphy and Yuan (2009) 참조.

<sup>5</sup> 탈냉전기 미중관계의 순환적 협력-갈등 구조에 대한 연구는 Lampton (2001, 13-48), 한석희(2002, 117-138) 참조.

<sup>6</sup> 미국의 중국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Beckley (2011, 41-78), Glaser and Morris (2009), Lam (2010), Saunders (2010) 참조.

<sup>7</sup> 국제정치 및 중국대외관계 연구에서 이러한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중미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Friedberg (2005, 7-45)참조.

<sup>8</sup> 국제정치의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주요 저술은 Waltz (1979), Mearsheimer (2001) 참조.

<sup>9</sup> 이러한 주장은 Mearsheimer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다. Mearsheimer (2011)

<sup>10</sup> 양극체제의 안정성이 왈츠의 연구라는 것은 상식적 수준이다. 핵 무기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Jervis (1989) 참조. 동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Ross (1999), McDevitt (2001) 참조.

<sup>11</sup> 이러한 성격의 연구들은 Nathan and Ross (1997), Johnston (2003, 5-56), Goldstein (2005), Shambaugh (2004, 64-99) 참조.



<sup>12</sup> 낙관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3가지 요소 -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체제를 통한 제도주의, 그리고 민주화라는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Doyle (1997, 251-300) 참조. 경제적 상호의존의 지역안정에 대한 낙관적 역할에 대해서는 Richardson (1994/1995, 28-39) 참조. 국제체제의 낙관적 역할에 대해서는 Keohane (1984). 경제성장에 따른 민주화 가능성의 상승을 명확히 분석한 연구는 Rowen (1996, 61-70) 참조.

<sup>13</sup> 이러한 주장은 Pei (1995), Rowen (1996, 61-70) 참조.

<sup>14</sup> 민족주의의 효과와 역할에 대해서는 Snyder (2000), Whiting (1995, 295-316), Shambaugh (1996, 180-209), Downs and Saunders (1998/1999, 114-146) 참조.

<sup>15</sup> 민주평화론은 Fukuyama의 민주주의 수렴론과 함께 민주화 논의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Fukuyama 1992; Doyle 1983).

<sup>16</sup> 국제사회의 대중 포용정책에 대한 중국의 의심과 걱정은 Shambaugh (1996, 209-207), Wu (1998, 132-133) 참조.

<sup>17</sup>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저술은 Wendt (1999), Katzenstein (1996).

<sup>18</sup> 이와 같은 내용은 Wendt (1992), Shambaugh (2000, 391-425) 참조.

<sup>19</sup> 이와 같은 입장은 閻學通 (2011)을 참조.

<sup>20</sup>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미관계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Ranger (2011)을 참조.

<sup>21</sup> 이러한 입장은 閻學通의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閻學通(2010; 2011)

<sup>22</sup> 부상하는 국가의 의도를 현상유지적, 현상타파적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이를 수정주의 (revisionist)적 성격과 혁명주의적(revolutionary) 성격으로 나누는 시각도 있다. (Schweller 1999) 중국의 부상을 수정주의적 성격으로 평가한 연구는 Nathan and Ross (1997), Johnston (2003, 5-56), Goldstein (2005), Shambaugh (2004/2005, 64-99)

<sup>23</sup> 2009년 이후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적 행태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는 Swaine (2010; 2011; 2012), Swaine and Fravel (2011) 참조.

<sup>24</sup>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에 대해서는 *The Economist* (November/19/2011), Cossa and Glosserman (2012)을 참조.

<sup>25</sup> ECFA에 대한 설명 및 그 의의는 경제협력 기본 협정문(ECFA 2010)을 참조.



---

<sup>26</sup> 2012년 2월 13일-17일 중국 시진핑 부주석의 미국방문과정에서 중국 외교부 부부장 추이티엔카이는 “신뢰 부족(trust deficit)이 양국의 관계 강화에 가장 큰 문제”라는 주장을 제기했다(*The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10/ 2012).

<sup>27</sup> ARF에서의 중미 공방에 대해서는 Glaser (2010)을 참조.

<sup>28</sup> 이와 같은 논의는 ASEAN+3와 EAS에 대한 논의인 Masahiro and Ganeshan (2007)에서 잘 나타나 있다.

<sup>29</sup> SCO에 대한 중국의 태도 및 입장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는 Carroll (2011)을 참조. 6자 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Chu and Lin (2008, 29-43)을 참조.

<sup>30</sup> 이러한 주장은 Pei (1995, 64-79), Rowen (1996, 61-70) 참조.

<sup>31</sup> 이러한 추세는 자본주의 4.0 논쟁으로부터 시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4.0에 대해서는 Kaletsky (2010)을 참조.

<sup>32</sup> 중미전략 및 경제대화에 대한 설명은 주중미국대사관 사이트를 참조(Embassy of the United States in Beijing, China 2009; 2010; 2011). 중국과 미국 수뇌 간의 상호방문은 Glaser (2010), Billingsley (2011), *The Economist* (February/18/2012)를 참조.

<sup>33</sup> 최근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도광양회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필요하다면 중국의 주장을 내세우는 전략으로 가겠다는 경향은 Chen and Wang (2011, 195-216)을 참조.

<sup>34</sup>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최근의 Schweller and Pu (2011, 41-72), Beckley (2011/2012, 41-78)을 참조.

<sup>35</sup> 예를 들어 2012년 2월 시진핑의 방미에서 중국은 271억 달러를 구매하여 미국인들의 환심으로 사려고 노력했다.





## 참고문헌

---

- 한석희. 2002. “탈냉전기 중미관계에 있어서 중국 민족주의의 역할.” <中蘇研究 > 26, 3: 117-138.
- 중앙일보 중국 연구소. 2009. “왕젠민의 ‘중미관계와 세계 신질서’.” 2월 19일. [http://china.joins.com/portal/article.do?method=detail&total\\_id=3499262](http://china.joins.com/portal/article.do?method=detail&total_id=3499262).
- Beckley, Michael. 2011/2012. “China Century? Why America’s Edge Will Endure.” *International Security* 36, 3: 41-78.
- Bergsten, C. Fred. 2008. “A Partnership of Equals.” *Foreign Affairs* 87, 4: 57-69.
- Billingsley, Brittany. 2011. “Pomp and Substance: Hu’s State Visit to the US.” *Comparative Connections* 13, 1.
- Brooks, Stephen G. and William C. Wohlforth. 2008. *World Out of Balanc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challenge of American Prima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rroll, William E. 2011. “China i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Hegemony, Multi-Polar Balance, or Cooperation in Central Asi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 19.
- Chen, Dingding and Jianwei Wang. 2011. “Lying Low No More? China’s New Thinking on the Tao Guang Yang Hui Strategy.”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9, 2: 195-216.
- Chen, Zhimin. 2009.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China’s Foreign Policy.” In *China’s Shift: Global Strategy of the Rising power*, ed. Masafumi Iida, 7-28.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 Chu, Shulong and Xinzhu, Lin. 2008. “The Six Party Talks: A Chinese Perspective.” *Asian Perspective* 32, 4: 29-43.
- Clinton, Hillary. 2011.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 Cossa, Ralph. 2010. “US-China Relations on a Downward Slide.” *PacNet* 4A February 10.
- Cossa, Ralph and Brad Glosserman. 2012. “Return to Asia: It’s Not (All) About China.” *PacNet* 7 January 30.
- Downs, Erica S. and Phillip C. Saunders. 1998/1999. “Legitimacy and the Limits of Nationalism: China and the Diaoyu Islands.” *International Security* 23, 3: 114-146.
- Doyle, Michael. 1983.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art 2.”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2, 3.
- \_\_\_\_\_. 1997. *Ways of War and Peace: Realism, Liberalism, and Socialism*. New York: W.W. Norton.
-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2010. “ECFA’s Win-Win-Win: Taiwan, mainland China and Global Trading Partners.” October 27.
-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in Beijing, China. 2009. “The First Round of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http://beijing.usembassy-china.org.cn/sed2009.html>.
- \_\_\_\_\_. 2010.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http://beijing.usembassy-china.org.cn/sed2010.html>
- \_\_\_\_\_. 2011.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Joint Closing Remarks.”



- <http://beijing.usembassy-china.org.cn/sed2011.html>
- Ferguson, Niall and Moritz Schularick. 2007. "Chinmerica' and the Global Market Asset Boom." *International Finance* 10, 3: 215-239.
- Friedberg, Aaron L. 2005.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30, 2: 7-45.
- Fukuyama, Francis.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London: Penguin.
- Glaser, Bonnie S. 2010. "Tensions Rise and Fall, Once Again." *Comparative Connections* 12, 3.
- \_\_\_\_\_. 2010. "Obama-Hu Summit: Success or Disappointment?" *Comparative Connections* 11, 4.
- Glaser, Bonnie S. and Lyle Morris. 2009. "Chinese Perception of U.S. Decline and Power," *China Brief* 9, 14.
- Goldstein, Avery. 1997. "Great Expectations: Interpreting China's Arrival." *International Security* 22, 3: 70.
- \_\_\_\_\_. 2005.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Jervis, Robert. 1989.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 Statecraft and the Prospect of Armagedd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Johnston, Alastair I. 2003. "Is China a Status Quo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27, 4: 5-56.
- Kaletsky, Anatole. 2010. *Capitalism 4.0: The Birth of a New Economy in the Aftermath of Crisis*. New York: PublicAffairs.
- Katzenstein, Peter J. 1996.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ed. Peter Katzenstei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Kawai, Masahiro Dean and Wignaraja Ganeshan. 2007. "ASEAN+3 or ASEAN+6: Which Way Forward?" Presented in the Conference on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Sponsored and organized by WTO-HEI Co-organized by the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EPR), September 10-12. Geneva, Switzerland.
- Keohane, Robert O.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hanna, Parag. 2008. *The Second World: Empires and Influence in the New Global Order*. New York: Random House.
- Kishore, Mahbubani. 2008. *The New Asian Hemisphere: The Irresistible Shift of Global Power to the East*. New York: Public Affairs.
- Lam, Willy. 2010. "Beijing Seeks Paradigm Shift in Geopolitics," *China Brief* 10, 5.
- Lampton, David M. 2001. *Same Bed, Different Dreams: Managing U.S.-China Relations, 1989-2000*.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cDevitt, Michael. 2001. "Roundtable: Net Assessment - Objective Conditions versus the U.S. Strategic Tradition." In *Asia and the Pacific: U.S. Strategic Traditions and Regional Realities* ed. Paul D. Taylor, 101-105. Newport, R.I.: Naval War College Press.
- Mearsheimer, John J.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_\_\_\_\_. 2011. "The Rise of China and the Fate of South Korea."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토론회>



발표, 10월 10일. 서울.

- Murphy, Melissa and Wen Jin Yuan. 2009. "Is China Ready to Challenge the Dollar?" *PacNet* 72 November 5.
- Nathan, Andrew J. and Robert S. Ross. 1997. *The Great Wall and the Empty Fortress: China's Search for Security*.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8.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_\_\_\_\_. 2009. "The End of Chimerica." Working Paper. 10-037. Harvard Business School.
- Nye, Joseph S. 2010. "China's Bad Bet Against America." *PacNet* 14 March 25.
- Overholt, William H. "China i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Rising Influence, Rising Challenges." *The Washington Quarterly*. 33, 1: 21-34.
- Pei, Minxin. 1995. "Creeping Democratization in China." *Journal of Democracy* 6, 4 : 65-79 .
- Pomfret, John. 2010. "Newly powerful China defies Western nations with remarks, policies." *The Washington Post* March 15.
- Ranger, Stephen. 2011. "Hegemonic Shift?: Public Perceptions of U.S.-China Relations." *EAI US-China Relations Watch* 1.
- Richardson, James I. 1994/1995 "Asia-Pacific: The Case for Geopolitical Optimism." *National Interest* 38: 28-39.
- Ross, Robert S. 1999.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23, 4: 161-193.
- Rowen, Henry S. 1996. "The Short March: China's Road to Democracy." *National Interest* 45: 61-70.
- Saunders, Phillip C. 2010. "Will China's Dream Turn into America's Nightmare?" *China Brief* 10, 7.
- Schweller, Randall L. 1999. "Managing the rise of great powers: history and theory." In *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an emerging power*, ed.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bert S. Ross, 1-31. New York: Routledge.
- Schweller, Randall L. and Xiaoyu Pu. 2011. "After Unipolarity: China's Visions of International order in an Era of U.S. Decline." *International Security* 36, 1: 41-72.
- Segal, Adam. 2009. "The G-2 Mirage." *Foreign Affairs* 88, 3: 14-23.
- Shambaugh, David. 1996. "Containment or Engagement of China? Calculating Beijing's Responses." *International Security* 23, 2: 180-209.
- \_\_\_\_\_. 2000. "Sino-American Strategic Relations: From Partners to Competitors." *Survival* 42, 1.
- \_\_\_\_\_. 2004/2005. "China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29, 3: 64-99.
- Sheridan, Michael. 2010. "China's hawks demand cold war on the US." *The Times* February 7.
- Snyder, Jack. 2000. *From Voting to Violence: Democratization and Nationalist Conflict*. New York: W.W. Norton.
- Stelzer, Irwin M. 2009. "The Real Action will be at the G2: China and the US." *Sunday Times (London)* March 29.
- Swaine, Michael D. 2010. "Perceptions of an Assertive China." *China Leadership Monitor* 32.
- \_\_\_\_\_. 2011. "China's Assertive Behavior, 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 Monitor* 34.  
\_\_\_\_\_. 2012. "China's Assertive Behavior, Part Three: The Role of the Military in Foreign Policy." *China Leadership Monitor* 36 .
- Swaine, Michael D. and M. Taylor Fravel. 2011. "China's Assertive Behavior, Part Two: The Maritime Periphery." *China Leadership Monitor* 35.
- Vaughn, Bruce. 2005. "East Asian Summit: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Order Code RS 22346. December 9.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 Wendt, Alexander. 1992.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2: 391-425.
- \_\_\_\_\_.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ing, Allen S. 1995. "Chinese Nationalism and foreign Policy after Deng." *China Quarterly* 142: 295-316.
- Wu, Xinbo. 1998. "China: Security Practice of a Modernizing and Ascending Power." In *Asian Security Practice: Material and Ideational Influence*, ed. Muthiah Alagappa, 132-133.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Wu, Xinbo. 2009. "Chinese Perspectives on Building an East Asian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Asia's New Multilateralism: Cooperation, Competition, and the search for community*, ed. Michael J. Green & Bates Gill, 55-77.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Yang Yi. 2010. "Navigating Stormy Waters: The Sino-American Security Dilemma at Sea." *China Security* 6, 3: 3-11.
- Zakaria, Fareed. 2008. *The Post-American World*. New York: W.W. Norton.
- China Daily*. 2009. "China-US Co-operation a Must for World Economy to Recover." March 7.
- The Economist*. 2009. "Taking the Summit by Strategy." April 8.
- \_\_\_\_\_. 2011. "We're back: America reaches a pivot point in Asia." November 19
- \_\_\_\_\_. 2012. "Buttering-up and scolding." February 18
- The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10, 2012.
- 王彦榮. 2008. "“兩國集團”(G2) 觀念評析." 〈時代經貿〉 8: 31-36
- 王嶠生. 2008. "切勿妄言‘中美G2時代.'" 〈中國青年報〉 2月 27日.
- 閻學通. 2010. "中國外交應与‘世界第二’ 地位相称." 〈國際先驅導報〉 12月 6日.
- \_\_\_\_\_. 2011. "中國應對鄰國提供軍事保護消除美勢力." 6月 1日.  
[http://news.ifeng.com/mil/4/detail\\_2011\\_06/01/6753029\\_0.shtml](http://news.ifeng.com/mil/4/detail_2011_06/01/6753029_0.shtml)
- \_\_\_\_\_. 2011. "一超多強開始向兩超多強演變." 〈環球時報〉 12月 30日.
- 〈環球網〉. 2010. "美國連續向中國發難 网民激辯中美是否會爆發‘冷戰.'" 2月 2日.



## 필자약력

한석희(韓碩熙)\_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하고 미국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Tufts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베이징 대학교 정부관리학원 강의교수로 재직 한 바 있다. 주요 저술로는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대외관계》, “중국의 다극화전략, 다자주의외교,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 “6자회담의 침체와 중국의 딜레마”, “Alliance fatigue amid asymmetrical interdependence: Sino-North Korean relations in flux” 등이 있다.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EAI 중국연구패널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외교안보팀장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mailto:hjkim@eai.or.kr)

